

# 세계도시

2006. 9. 4 제150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시정홍보와 시민참여의 다목적 교류공간,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 도시경영·경제

1.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만든 음식 제공 행사 개최 (독일 함부르크市)
2. 외국인 이민 장려로 경제 활성화 기대 (영국)
3. 지방정부간 전문기술 인력 확보 경쟁 치열 (호주)
4. 공무원 및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순회 내각회의 개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5.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식품회사 공시 (북경)
6. 보험 산업의 중심지 구상 계획 (북경)

### 복지·문화

7. 도시공원 개선사업으로 문화예술작품 설치 추진 (캘리포니아州 알바니市)
8. '문화재 개방의 날' 행사 개최 (베를린)
9. 노년층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인의회 개최 (런던)
10.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업대책 성공사례 발표 (영국)
11. 5세 이하 아동을 위한 'Sure Start' 프로그램 성과 발표 (영국)
12. 소수인종 고용업체에 입찰 시 혜택 부여 (영국)
13. 시민의 편의를 돕는 온라인 북클럽 운영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市)

### 도시환경

14. 세계 유명 도시의 모범 사례 활용 (런던)
15. 쇼핑 비닐봉지 유료화 등 환경보호 종합대책 추진 (호주 빅토리아州)
16.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정책 제안 (영국)

### 도시교통

17. LPG 전환 차량에 보조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 마련 (호주)
18. 대중교통 정기권 이용자에게 문화행사 관람 등 혜택 제공 (런던)
19. 교통이용 양상과 지구환경 변화의 상관관계 연구 (영국)

### 도시계획·건설·주택

20. 도시 공공공간과 녹지보존 전략 수립 의무화 (스코틀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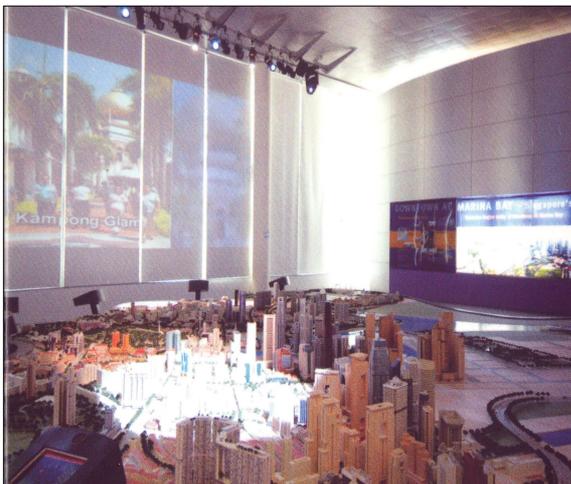
## 벤치마킹 사례

### 시정홍보와 시민참여의 다목적 교류공간,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 <주요 내용>

높은 건물이나 산 위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면 도시의 전모가 한눈에 들어와 이해하기가 쉽다. 높은 데 올라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때로는 축소된 도시모형을 전시하기도 하는데, 방문객과 시민은 소인국의 걸리버가 되어 도시모형을 내려다보고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모형을 전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에게 도시를 쉽게 이해시키고 나아가 도시를 홍보하고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일에 많은 도시가 공을 들이고 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세계도시 싱가포르도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개발청(URA) 건물에 들어서면 관광객과 시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인 '싱가포르 시티갤러리'가 있다.

1999년에 개관한 이곳은 1층 중앙홀에 100㎡ 규모의 싱가포르 전체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모형의 주변과 벽면 곳곳에는 싱가포르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어 있다. '싱가포르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놀기에도 좋은 위대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도시디자인의 목표'라는 문구가 간결하고 분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2층에 올라가면 좀더 정밀하고 크게 만든 싱가포르 중심지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마리나베이 신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도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3층에는 싱가포르 역사 소개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성과 등이 옛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2층에 전시된 싱가포르 중심지 모형



인기스타가 진행하는 '싱가포르 알기' 퀴즈 프로그램

싱가포르 시티갤러리가 시민과 방문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쌍방향의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더 나은 싱가포르의 비전과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게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곳에서 화면을 통해 인기스타를 만나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지식을 퀴즈를 통해 습득한다. 시민이 직접 도시계획가가 되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기도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장치를 이용해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해보기도 한다.

### <해설 및 평가>

비단 싱가포르뿐 아니라 세계도시를 꿈꾸는 많은 도시가 도시 홍보전시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시티갤러리는 단순한 홍보 공간을 넘어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는 교류의 마당으로 이미 자리 잡았고 관광명소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에도 몇 해 전 역사박물관이 개관되었고 시청사에도 시정홍보관이 있다. 하지만 거대도시 서울의 유구한 역사와 눈부신 발전상, 서울만이 지닌 매력과 특성을 알기 쉽게 보여주거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홍보와 참여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교류의 장(場)을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 <벤치마킹 시행방안>

시민과 방문객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부 어딘가에 ‘서울도시홍보관(가칭)’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도심부의 관광명소에서도 가깝고 대중교통 접근 또한 용이한 곳에 위압적이지 않을 만한 규모의 건물을 지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울 소개 및 홍보자료와 중요한 도시계획 자료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울의 아름다운 산과 구릉, 한강과 지천을 배경으로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커다란 모형을 제작해 전시하고, 서울의 과거 역사는 물론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다채로운 전시매체를 활용해 알기 쉽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을 활용해 원하는 곳에 찾아 들어가 상세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 또한 이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도시홍보관이 단순히 정보를 얻고 가는 일방향 교류의 장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참여가 이루어지는 쌍방향 교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장치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싱가포르 시티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매체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외국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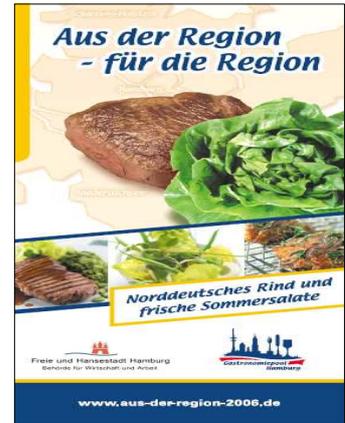
### <벤치마킹 기대효과>

서울도시홍보관이 조만간 세워져 서울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과 관광객에게는 서울을 처음 만나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민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서울을 배우고 더 나은 서울을 계획하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정석 도시계획부 연구위원(jerome@sdi.re.kr)

**1.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만든 음식 제공 행사 개최 (독일 함부르크市)**

독일 함부르크市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함부르크市 요식업 단체에 등록된 회원에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조리한 음식을 특별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색행사를 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첫 번째 행사의 테마는 '소고기와 샐러드'다. 이어서 가을에는 '야생식품과 양상추 스페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 행사를 연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시장에서 제 위치를 차지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품을 지역주민의 식탁에 제공함으로써 함부르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fhh.hamburg.de/stadt/Aktuell/pressemeldungen/2006/august/14/2006-08-14-bwa-regionale-produkte.html](http://fhh.hamburg.de/stadt/Aktuell/pressemeldungen/2006/august/14/2006-08-14-bwa-regionale-produkte.html))

**2. 외국인 이민 장려로 경제 활성화 기대 (영국)**

영국 공공정책협회(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영국 북동부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면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속철 기술 이민자와 자국민이 기피하는 직업 종사자를 전략적으로 유입함으로써 북동부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이민으로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외국 이민자에게 자국민이 기피하는 직업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Planning, 2006. 8. 4)

**3. 지방정부간 전문기술 인력 확보 경쟁 치열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와 퀸즐랜드州가 서로 상대 州로 찾아가 취업설명회를 갖는 등 전문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州는 2006년 8월 10일 퀸즐랜드州 브리즈번市에서 '뉴사우스웨일스州 주간 엑스포'를 열어 재정 및 금융 관련 상위권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했다. 이 설명회에서 모리스 이앰마 州총리는 뉴사우스웨일스州는 호주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퀸즐랜드州의 두 배에 달한다며 젊은 전문가들이 재정 및 금융부문의 세계적 경력을 넘칠 만큼 쌓을 수 있는 토대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퀸즐랜드州도 2006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뉴사우스웨일스州 시드니 올림픽 공원에서 1500명의 뉴사우스웨일스州 숙련기술자를 모셔가기 위한 구인 전시회를 열었다. 퀸즐랜드州는 가구 제작자, 용접기술자, 전기기술자, 간호사, 조산원, 판금기술자, 토목기술자 등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퀸즐랜드州는 뉴사우스웨일스州에 비해 퀸즐랜드州가 일년에 일인당 427호주달러(약 31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이 낮고 3만 7000개의 일자리가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주택 가격 및 생활비가 저렴하고 물가가 낮다는 점을중점 홍보했다.

([www.hojudonga.com](http://www.hojudonga.com))

#### 4. 공무원 및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순회 내각회의 개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최근 주정부가 전략적으로 내놓은 혁신정부 개혁안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 자치단체들을 순회 방문해 내각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의 장관들은 지역주민 및 일선 공무원이 피부로 느끼는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내각회의에 직접 참여해 지역구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전략적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특히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을 주정부와 논의할 수 있어 주정부의 새로운 시책을 환영하고 있다. 지역순회 내각회의에서는 각 부별 장관이 내각 본회의를 제외하고도 평균 수십 개의 개별 회의를 하며, 면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내 이익단체 등 다양하다.

(호주 ABC 방송 Online 뉴스, 2006. 8. 2)

#### 5.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식품회사 공시 (북경)

북경시 공상국은 2006년 상반기에 식품유통 관리 감독을 강화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적발된 식품회사를 공시하고 퇴출함으로써 식품유통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최대한 없애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에 10차례 이상 적발된 6개 식품회사의 모든 제품은 북경시장 내 유통이 금지되고 북경시 기업신용정보망의 경계 정보 시스템에 등록됐다. 10차례 이하로 적발된 12개 기업과 불합격된 식품이 10종 이상인 8개 유통업체 역시 기업신용정보망의 경계 정보 시스템에 등록됐다. 시장에서 퇴출된 북경 혼락극 식품 등 6개 기업과 기타 공시정보는 북경 공상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hd315.gov.cn/chaxun/hongdun-1.asp?id=29896](http://www.hd315.gov.cn/chaxun/hongdun-1.asp?id=29896))

#### 6. 보험 산업의 중심지 구상 계획 (북경)

북경시는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2006~2010년) 중에 추진할 금융발전 계획에 중국 보험 시장과 재보험 시장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보험중개 시장과 농촌보험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지난 10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북경시 금융시장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특히 보험시장의 약진이 눈부셨다. 2005년 북경지역 누계보험료 수입은 497억 8000만 위안(약 6조 2250억 원)으로 9차 5개년 기간 말기에 비해 4.3배, 연평균 37.7% 성장했다. 성장 이유는 북경시의 투자환경이 좋아 보험회사를 계속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현재 북경에는 45개 보험회사의 분점과 6개 본사가 있다. 북경시는 중국 보험 시장과 재보험 시장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책임보험, 신용보험, 건강보험을 비롯해 재산보험과 같은 신상품을 적극 개발해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을 보완하고 보험업무 영역을 넓혀 은행 대리업무를 하는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인터넷마케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www.beijing.gov.cn/zw/zwxxt650692.htm](http://www.beijing.gov.cn/zw/zwxxt650692.htm))

## 7. 도시공원 개선사업으로 문화예술작품 설치 추진 (캘리포니아주 알바니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바니시는 도시공원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크게 알바니시의 오션 뷰 공원, 테라스 공원, 메모리얼 공원 등이다. 오션 뷰 공원의 경우 공원 입구에 조각물을 설치해 공원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표현한다. 테라스 공원에는 새로 만들고 있는 화장실 벽에 지역사회를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타일을 이용해 그릴 예정이다. 메모리얼 공원은 공원 조경을 위한 조각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현재 도시공원 내 문화예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문가, 시민, 예술위원회 위원,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www.albanyca.org/gov/parkart.html#Terrace%20Park](http://www.albanyca.org/gov/parkart.html#Terrace%20Park))

### >>> 전문가 검토의견

이 시책은 도시공원의 리노베이션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다. 지역사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각물이나 벽화를 설치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도 높이고, 지역민의 향토심도 북돋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특히 자연녹지와 어우러진 예술작품의 설치를 통해 공원 이용객에게 문화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주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내 근린공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만하다.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에 설치한 야외조각 전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치된 것이다. 서울시 공원과 등에서 주관하고 자치구의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 설치미술 작가를 선발하는 것과 적재적소의 공원에 벽화, 조각물을 설치하는 것을 진행함으로써 도심 내 문화적 기회를 더욱 더 증진시켰으면 한다. 한편 설치물에 대한 관리와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의자 설치의 경우는 기념식수와 같이 시민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그 시민의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애착심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8. '문화재 개방의 날' 행사 개최 (베를린)

매년 9월에 열리는 '문화재 개방의 날'(Tag des offenen Denkmals) 행사가 2006년에는 9월 9~10일에 '정원 문화재'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베를린시는 시민에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과 가로숫길 및 정원을 개방하며, 관련된 재미있는 역사도 알려준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개인 정원도 개방된다. 올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문화재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340개 프로그램 중 대부분은 시민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 팸플릿은 인터넷과 베를린 문화재청, 구청에서 배포된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denkmal/denkmaltag/](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denkmal/denkmaltag/))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8/nachricht2381.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8/nachricht2381.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가격정책은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촉진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어떤 날에는 대폭 할인해 준다든가, 어떤 날에는 돈을 안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대다수 예술시설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서울시도 여러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이는 일괄적으로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다른 도시처럼 특정 이벤트를 벌여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등 좀더 고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독창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 9. 노년층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인의회 개최 (런던)

노년층의 이해와 요구를 市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런던 노인의회(Older People's Assembly)가 최근 성공리에 개최됐다. 런던시민으로서 노인의 생활, 문화, 예술,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강, 장수, 지역사회와 노인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였으며 토론 내용은 런던시청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런던市가 발간한 'Older People in London: Facts and Figures'(2002)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런던 시민은 총 인구의 15.4%인 120만 명이며, 총 연금 생활자의 1/3이 단독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london.gov.uk/mayor/older\_people/assembly.jsp)

## 10.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업대책 성공사례 발표 (영국)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13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버밍엄, 블랙번, 에든버러, 레스터, 맨체스터 등 13개 지역이다. 선정 지역에는 '도시 전략 길잡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며 지역 내 자발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 및 전문 정책 지원이 제공된다. 영국정부가 1차로 500만 파운드(약 91억 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지역에는 추가 예산도 지원한다. 맞춤형 실업대책은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일하는 복지'를 표방하는 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557)

## 11. 5세 이하 아동을 위한 'Sure Start' 프로그램 성과 발표 (영국)

영국에서 5세 이하 아동의 가정육아, 조기교육, 건강, 가족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Sure Start' 프로그램이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다고 Sure Start Local Partnership이 발표했다. 이 평가 보고서를 보면, Sure Start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역의 실업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많이 낮으며 생계를 위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거나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 역시 Sure Start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Regeneration & Renewal, 2006. 8. 4)

## 12. 소수인종 고용업체에 입찰 시 혜택 부여 (영국)

영국정부는 정부 관련 입찰과 수주에 있어 입찰회사의 소수인종 고용비율 정도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다민족 사회라는 배경과 평등한 고용기회 부여라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이 계획은 영국 소수인종 고용해결팀(Ethnic Minority Employment Task Force)이 제안했고, 영국 내무부, 교육부, 고용센터 등 일부 정부기관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례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경우 전체 관공서로 확장해 실시할 계획이다. (Regeneration and Renewal, 2006. 8. 11)

### 13. 시민의 편의를 돕는 온라인 북클럽 운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2006년 6월부터 온라인 북클럽을 운영해 바쁜 일상생활로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 힘든 시민을 위해 원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우스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은 읽는 데 5분 정도 걸리는 분량의 전자도서 파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시민은 이 전자도서 파일을 읽어 본 후 책을 빌릴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서비스 외에 오디오 북이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의 일부도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민이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끼리 전자도서 파일을 주고받으며 친목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ww.ci.ssf.ca.us/civica/press/display.asp?layout=1&Entry=73](http://www.ci.ssf.ca.us/civica/press/display.asp?layout=1&Entry=73))

## 도 시 환 경

### 14. 세계 유명 도시의 모범 사례 활용 (런던)

런던시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력 조직인 '런던 기후변화 파트너십'(London Climate Change Partnership)은 '런던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유명 도시가 실천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런던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호주 멜버른시, 도심 이상 고온(열섬현상) 대책이 돋보이는 상하이시와 필라델피아시 등이 사례로 포함됐다. 아울러 모범 사례를 런던시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중앙-지역-지방정부, 집행기관인 환경청, 물 관련 기업, 보건의료 종사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의사결정에 있어 계층별 중점 고려사항이 정리돼 있다.

([www.bmvbs.de/-,302.955930/energieausweise-Waermeschutz-b.htm](http://www.bmvbs.de/-,302.955930/energieausweise-Waermeschutz-b.htm))

### 15. 쇼핑 비닐봉지 유료화 등 환경보호 종합대책 추진 (호주 빅토리아주)

호주 빅토리아주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각 상점에서 쇼핑객들에게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비닐봉지를 사용할 경우 장당 10호주센트(약 70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용은 일단 상점 주인이 물건 값에 포함해 받은 뒤 주정부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2009년부터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매년 버려지는 11억 장의 비닐봉지가 절약될 뿐 아니라 총 1억 호주달러(약 730억 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빅토리아주의 2억 호주달러(약 1460억 원) 규모의 환경보호대책안에는 2016년까지 모든 전기 공급업자들이 판매하는 전력의 10%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풍력이나 태양열 에너지로 대체해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스티브 블랙스 주총리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1년에 총 350만 톤에 이르는 환경유해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80만 대가 1년 동안 뿜어내는 배기가스 양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www.dse.vic.gov.au](http://www.dse.vic.gov.au))

## 16.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정책 제안 (영국)

영국정부의 도시, 건축, 공공기관 연구와 정책 자문기간인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영국 전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가 건물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모든 건물은 건설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을 설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친환경정책은 특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도시, 지역, 국가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CABE는 밝혔다. (www.rudi.net/node/9833)

## 도 시 교 통

## 17. LPG 전환 차량에 보조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 마련 (호주)

호주 연방정부는 8년 계획으로 16억 호주달러(약 1조 1000억 원)를 지원하는 고유가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차량을 LPG로 전환하는 경우 2000호주달러(약 140만 원)를 지원하고 LPG 엔진이 부착된 차량을 구입할 경우 1000호주달러(약 70만 원)를 보조한다. 하워드 총리는 LPG를 사용하는 6기통 차량으로 연간 1만 5000km를 주행하면 연료비를 연간 1400호주달러(약 100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으며 4개월분의 연료절약액과 정부 보조금 2000호주달러(약 150만 원)를 합하면 2500호주달러(약 180만 원) 정도의 LPG 전환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LPG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한편, 호주정부는 주유소에서 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판매하도록 권장하며 에탄올 혼합 휘발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개조 비용을 최고 2만 호주달러(약 14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 채굴 및 지열발전을 위해 5900만 호주달러(약 420억 원)를, 해저 에너지 탐사를 위해 7600만 호주달러(약 540억 원)를, 벽지 발전시설 증대를 위해 1억 2400만 호주달러(약 870억 원)를 각각 지원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8. 15)

## 18. 대중교통 정기권 이용자에게 문화행사 관람 등 혜택 제공 (런던)

런던시와 런던교통공사는 여름 관광철을 맞아 전자 선불 정기권(Oyster Card) 이용자에게 음악, 연극, 뮤지컬 등 문화행사에 초대하고 관광시설 및 식당 이용 시 1인 가격으로 2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6년 들어 교통카드를 가진 성인과 동반하는 16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지하철과 트램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고 버스의 경우 18세까지 무료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요금체계 차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가족단위 여행객을 겨냥해 어린이 무료승차 제도에 이어 문화 및 여가이용과 교통요금체계를 연계한 제도 시행으로 평소 추진해온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도심 교통체계가 더욱 다각화되어 이용자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www.tfl.gov.uk/tfl/fares-tickets/oyster/deals/index.asp)

## 19. 교통이용 양상과 지구환경 변화의 상관관계 연구 (영국)

영국 교통부가 일반 시민이 지구환경 변화와 교통이용 패턴의 상관관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이 교통이용 양상과 지구환경 변화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호관계를 홍보함으로써 시민이 자동차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보다는 소규모의 특정 계층별로 홍보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lanning, 2006. 8. 9)

## 도시계획·건설·주택

## 20. 도시 공공공간과 녹지보존 전략 수립 의무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는 최근 'Scottish Planning Policy 11'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공간, 녹지, 스포츠 시설의 보존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보존뿐 아니라 공공공간과 스포츠활동지역 개발을 지방정부에서 진행할 경우 반드시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을과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와 공공공간의 보존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추진되는 이러한 전략 수립 의무화는 스코틀랜드 국민의 건강 관련 통계가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결과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Planning, 2006. 8. 14)

## 한줄 뉴스

- 런던市, 런던 낙후지역과 도심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16.5km 구간의 경전철 계획안 통과
- 호주 교민, 한국정부 및 호주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행사와 교민모임을 할 수 있는 한국정원 조성 기대
  - 호주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한국 지자체는 17개. 서울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자매결연해

### <북경>

- 국제공항 북부도로인 제2공항 고속도로(총 연장 11.29km) 2006년 10월 개통 예정
- 북경시내와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여객운송 전용 지하철 2008년 8월 개통 예정
- 市 위생국, 혈액품질 관리센터를 설립해 혈액공급기관이 혈액채집 정보를 매일 보고토록 해
- 2008년 올림픽 대회 관계자가 이용할 친환경 전동 교통버스 50대 도입 예정
-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형, 초절감형 등 '등급별 에너지 절약 표지'를 건물에 부여해 2010년까지 석탄기준 377만 8500톤의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